광주에서 육교가 사라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변화로 ‘제거 대상’ 신세…5년새 5개 철거 67개 남아

차량 통행을 우선하던 교통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육교 없애기’ 바람이 불고 있다.

13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에서는 ‘늘 푸른 구름다리’(상록육교)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상록육교는 높이 5m, 폭 3m, 길이 89m의 육교로, 지난 1998년 준공한 이후 24년 만에 철거된다.

광주에서는 최근 육교 철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광주 최초의 육교인 광주시 동구 궁동 ‘중앙육교’가 철거됐다. 또 48년 된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교 앞 육교를 비롯해 ‘쌍촌1육교’, ‘무량육교’, ‘신창2육교’ 등 5년 새 5개 육교가 철거됐다. 상록육교 철거가 끝나면 광주에는 67개 육교만 남게 된다.

1990년대까지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육교는 2000년대 이후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낡은 육교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판단 때문에 ‘철거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다. 안전진단을 거쳐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강기 미설치, 휠체어 이동로 미확보 등의 이유로 철거되는 것이다.

육교는 ‘차량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행자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들게 길을 건너야 하지만, 대신 차량은 보행자나 신호에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길을 건널 수 있게 돕는 ‘안전 다리’ 역할도 맡는다.

광주일보도 지난 1969년 중앙초교 앞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진 것을 계기로 ‘학교 앞 육교를 세워주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81만 3785원 성금을 모아 광주 최초의 육교인 중앙육교를 세웠다. 이후 수창초, 계림초 등 학교 앞 육교가 잇따라 세워졌다.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청 앞 옛 상록회관 육교가 철거되고 있다. 철거작업은 15일까지 상판 제거작업을 마친 후 18일부터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 정책이 자리잡은 이후 육교는 ‘제거 대상’이 됐다.

2000년 당시 서울에는 248개 육교가 있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153개로 38.31% 감소했다. 부산에서도 2005년부터 ‘걷는 사람 위주의 거리 만들기’ 정책을 시행해 2000년 146개에 달했던 육교를 2019년 110개까지 줄였다.

‘배리어 프리’(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운동) 분위기도 육교 철거에 명분을 보탰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육교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불편이 컸다.

광주시 서구는 인근 학교 유무, 통행량, 무단횡단 빈도 등을 고려해 육교 철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쌍촌동 한국농어촌공사 앞 ‘쌍촌2육교’, 내방동 잿등 앞 ‘화정육교’ 2개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이란 주제로 열렸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장애인에게 코로나는 더 가혹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토론회

확진 때 병원 입원 못하고 장애인콜택시·119도 외면 시각장애 진단키트 무용지물

“광주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시대가 더 힘들었어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토론회에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코로나19가 장애인들에게 더 혹독했다고 호소했다.

선별진료소 방문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거절하기 일쑤였고 코로나에 걸려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병원 입원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코로나19시대를 살며 느낀 것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강상수(34·시각장애인)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활동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별진료소를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한심하고 생각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광주시 등 보건당국은 자발적 검사를 강조했지만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선별진료소를 다녀올 때마다 감염에 대한 걱정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면서 “눈으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진동이나 소리로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윤희영(여·46) 활동가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원체계 마련해라’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 근처 병원으로 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병원 입원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결국 시골에 있는 70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저는 어머니라도 있지만, 무연고 장애인은 코로나에 걸리면 사실상 혼자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은 증상 정도에 상관없이 집중 관리 군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선택과목 쏠림 심화 “3월 학평서 점수 차 더 벌어져”

입시전문학원 “우수한 학생 언어와 매체·미적분에 더 쏠려”

지난달 24일 치러진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결과 국어·수학의 선택과목 간 점수 차가 지난해보다 크게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종로학원이 3월 학평을 치른 수험생 6120명(고3 3456명, 졸업생 2664명)을 표본조사 했더니 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공통과목 점수 차이가 지난해 3월 학평보다 훨씬 크게 발생했다.

국어 선택과목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고3 학생의 국어 공통과목 점수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의 점수는 2.9점이었지만 올해는 8.4점으로 벌어졌고 졸업생의 경우도 작년 2.7점 차에서 올해 3.5점 차이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선택한 고3 학생의 공통과목 점수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공통과목 점수는 지난해 3월 학평 13.8점에서 올해 15.4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졸업생 역시 미적분 선택 학생과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의 격차는 12.6점에서 12.8점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에 더 집중되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에서 점수가 더 높게 형성돼있어 이후 재수생과 반수생 유입에도 과목별 점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이과 학생의 문과 교차지원이 대거 발생한 것을 놓고 보면 올해 수시 지원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문계 학생의 수시 수능 최저충족률이 자연 계열 학생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진학사가 2021·2022학년도 정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27만7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인문계열 수험생의 수시 최저 충족률은 2022학년도에 21.1%로 전년(30.1%)으로 9%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 계열 학생은 33.7%로 전년(37.1%)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영어도 2021학년도에 비해 어렵게 출제돼 자연계열 대비 충족률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원인, 유압조절장치 밸브 고착 가능성 낮아”

사참위, 3년여만에 결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 개시 3년만에 다수의견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은 솔레노이드 밸브(유압조절장치) 고착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참위에 따르면 전날 제14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직권조사 안건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모두조건을 상정해 별도로 모형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세월호 우현 급선회와 러더(Rudder·방향키·방향타) 좌현 8도 현상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침몰 과정에서 어떤 물체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감싸고 있는 부분(케이싱)을 타격해 밸브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민 비상임위원은 “다른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추가되지 않는 한 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한 세월호 우현 급선회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을 주장했다.

/연합뉴스